

연중 제24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9 **I3**

[가해] 제2555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마태 18,27)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
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집회 27,30—28,7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
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
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값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로마 14,7-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
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8,21-35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 교구 생태활동가 연수(2026.8.28-29)



소리주보
QR코드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옥산성당 주임 |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마음으로부터 용서합시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1독서인 집회서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너무나도 가슴에 짊어지고 있는 말씀이라 건어낼 부분이 없습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용서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비참함을, 무고함을, 분노를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용기가 나지 않고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용서가, 어쨌든 쉽지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냈을 때 나는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참된 기쁨과 환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희생하는 용기가 만들어 내는 일치와 화합, 즉 사랑의 극치입니다. **말씀**

| 말씀 KEY WORD

만탈렌트 (μύρια τάλαντα)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숫자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돈의 액수를 말씀하십니다. 만 탈렌트. 한 탈렌트는 육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만 탈렌트는 육천만 일, 한 사람이 이십만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하며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의 최저임금(시급 10,320원)으로 환산하면 5조 원에 가깝지요. 요세푸스가 전하는 헤로데 왕국 전체의 연간 세수가 구백 탈렌트였으니, 이것은 한 개인은커녕 한 나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만'(μύριοι)은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이름이고, 탈렌트는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은 언어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골라 용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는 계산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참고 소화시킬 만한 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구 생태활동가 연수

교구 생태환경 및 농어민사목부(부장: 성용규 도미니코 신부)는 8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에서 교구 생태환경 활동가들과 함께 생태 연수를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활동가들과 함께 읽은 『0원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생태적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둘째 날에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을 탐방하고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 모랫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허태임 플로라 박사(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연구원)의 안내로 수목원의 다양한 식물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지금, 연락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 때
전화 한 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는 삶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상담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마음이 힘든 순간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053-256-019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애플리케이션, 109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상담 1577-0199, 도박문제상담 1336,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1342,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보건복지상담 129 등 생활 속 어려움을 돕는 다양한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40, 학교폭력상담전화 1588-9128, 국방헬프콜 1303,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따뜻한 관심과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자.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dgmhc.or.kr/index.php>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19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가정 2차 모집

- 기 간 2026.8.11. ~ 2026.10.31.
- 신 청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해주세요. 관련 공문(천대교 2026-157) • 문 의 250-3116~7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교육안내

- 일 정 9.19, 10.17, 10.24, 10.31(토요일 14:30) ※ 연휴 등으로 9.26, 10.3, 10.10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 장 소 교구청 본관 대강의실
- 대 상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2차 등록인원

일제 강점기, 세 주교가 지켜낸 교구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영 안드레아

유지재단 설립으로 교구의 재산을 지켜냈지만, 일제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39년 제정된 종교단체법으로 모든 종교가 국가 통제 아래 놓였고, 그 흐름은 곧 교구를 이끄는 자리에까지 미쳤습니다. 1938년 2월, 27년간 대구대목구를 이끌던 드망즈 주교가 선종했습니다. 후임으로는 무세 신부가 임명됐지만, 이 선택에는 이미 대일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5월 성성식을 마친 무세 주교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교구를 이끌어갔습니다.



▲ 무세 주교 서품미사(계산성당, 1939.5.7)

그러나 1942년, 일제는 외국인 교구장의 사임을 교황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도쿄 주재 교황대사가 이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무세 주교는 사임 의사를 전했고, 후임으로 일본 센다이교구의 하야사카 규헤이에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기보다는 희생에 관한 것으로...’라는 주일 교황대사의 임명 통보를 접한 하야사카 신부는 조선과 아무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명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해 말 주교품을 받아 대구대목구 제3대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 하야사카 주교 성성식
(계산성당, 1942.12.25)

‘일본인 교구장’은 신자들에게도, 하야사카 주교 자신에게도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행적은 임명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43년, “천황이 가장 높다.”라는 시국 강연에 “하느님이 더 높은 분이다.”라고 반박했다가 옥고를 치르던 자천성당 최재선 신부를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함안 지역 경찰의 성당 징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1944년 함천성당에 대한 박해에는 교구장 명의의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통제를 위한 것이었지만, 여러 차례 교회와 신자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총독부의 요구와 신자들의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건강은 서서히 무너졌고, 1945년에는 병중에도 성유 축성 미사를 간신히 마쳤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그는 대구를 떠나지 않고 병상에서 교구장의 직책을 지켰습니다. 1946년 1월, 그는 대구에서 선종했고, 장례미사는 다른 아님 무세 주교가 집전했습니다.

드망즈에서 무세, 무세에서 하야사카로 이어진 8년은 대구교구가 여러 차례 지도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신앙공동체는 끊이지 않았고, 해방과 함께 교구는 다시 조선인 성직자들의 손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구대교구 성직자묘지에는 드망즈, 무세, 하야사카 세 주교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국적도, 부임한 사연도 저마다 달랐던 세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함께 대구교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목교**

한국인 신부들의 피정과 공소 방문

5월 26일(월)

그저께 저녁에 한국인 신부 피정이 끝났다. 한국인 신부들은 다 건강한데 주 바오로(朱在用) 신부만이 좀 지쳐있다. 나는 그를 그의 이웃인 이 발도로메오(李尙華) 신부와 함께 토요일까지 여기 남아있게 했다. 김 스테파노(金洋洪)와, 김 요셉(金紋玉) 신부는 오늘 떠났다.

5월 27일(화)

샤르즈보프 신부가 부산에서 제주도행 배를 타기 위해 오늘 저녁에 떠났다. 그는 거기에서 두 달 반 동안 있을 생각이다.

5월 29일(목) [예수 승천 천례]

오늘 대성당에서 나의 미사가 끝난 때부터 3시에 거행된 성체강복 때까지 성체현시가 있었다. 나는 1920년 4월 초에 로마에서 있을 예정인 외방전교회 대표 주교들의 소집장을 받았다. 12월에는 출발해야 할 것 같다. 페랑 신부가 모지에서 26일에 쓴 편지를 보냈다. 27일, 그는 홍콩으로 직접 가는 배를 타야 했다

5월 31일(토)

2시 기차로 대구를 출발하여 저녁 10시에 나바위에 도착했다. 이(李尙華) 신부와 주(朱在用) 신부가 김천까지, 줄리앙 신부는 나바위까지 동행했다.

6월 1일(일)

견진성사, 그리고 휴식.

6월 2일(월)

줄리앙 신부가 전라도의 다른 공소들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 나는 내 피정을 시작했다. 뤼카 신부가 왔다.

6월 7일(토)

좋은 상태에서 나바위에서 돌아오는 여행을 했다.

6월 8일(일) [성신 강림 천례]

장엄한 독송미사, 3시에 많은 견진, 그리고 성체강복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환대'입니다.

캠 페 인
바로보기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홈스테이 제공하기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기본당에 처음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고 소개하기청년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노약망 요한 신부 (1902년 9월 13일 선종) • 황용식 타대오 신부 (2020년 9월 18일 선종)

주간 교구 행사 및 미사안내

- 13 일** | 2026년 주일학교 교리교사 하반기 심화프로그램, 10:00 교구청 본관 3층 중강의실 | 주일학교 미사 반주 클리닉, 13:30 팩스테이지
- 14 월** |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신평성당 |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대성당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계산대성당 |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황성성당 |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월성성당 |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죽도성당
- 16 수** | 대건중등학교 개교 제80주년 기념미사, 11:00 대건관(조환길 대주교)
- 17 목** |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00 평화성당
- 18 금** | 1대리구 교리교사회장 모임, 20:00 1대리구청 강당
- 19 토** |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동천성당 |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남산성당 |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1:00 순례자성당 | 미바회 월례미사, 11:00 성모당 | 창조시기 - 금호강 에큐메니컬 기도회, 11:00 팔현습지 | 창조시기 - 919 대구기후정의 행진, 16: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토비아 성지순례(20일까지, 광주대교구)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공모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7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

신청기간 2026.9.21.(월)~12.4.(금)

부문 ① 장학금 지원 _ 박사 후 과정, 석·박사 과정, 학부 재학생

접수방법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② 학술 연구비 지원 _ 천주교 및 시노달리타스 관련 연구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제2대리구 성가합창제

제2대리구 성가합창제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시편 34,2

참가 성당 범물|범어|백천|만촌1동|성정하상|신서|하양

◆ 일시 | 10.3(토) 14:00~16:00

찬조 출연 Fiat 여성 중창단|범어성당 어린이 성가대

◆ 장소 | 주교좌 범어성당 대성전

◆ 문의 | 제2대리구청, 743-7010

김수환 추기경과 바보의나눔 가난한 이들과 살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머문 시간은 행복했다. 성탄 전야에 산동네와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가톨릭평화신문, 2007) 중

정기기부신청



*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나누시며,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의 이웃을 섬기신

추기경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보의나눔」이 소외된 이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 목동 재개발 지역 방문(1975.5)

■ 수도회 성소 | 피정 알림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대상: 중1~35세 미만 미혼 남성
문의: (010)6221-3520

성아우구스티노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네번째 주일 11:00
장소: 인천 성아우구스티노수도원
내용: 언제든지 연락 환영
문의: (010)3271-7974

대구성령봉사회 1일 치유 대피정

기간: 9.19(토) 10:00~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 / 미사: 김준년 신부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전주교구)
참가비: 1만원(20세 이하 무료)
문의: (054)954-0951 / (010)5119-5608

도심 속 하루 피정

일시: 10.3(토) 13:00~17:00
주제: 성모님과 함께 마음의 매듭 풀기
신청: 대구 바오로딸
문의: (010)6681-5185

원로사제들과 함께하는 진목정 성지 피정

10.10(토) 10:00~11:00: 채영희 요셉 신부
신청: 인터넷 사이트와 QR 코드



▶ 피정 신청
QR 코드

제주 강우일 주교 '푸른곰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 섬, 올레길, 성지순례, 말씀초대
기간: 10.22~24 / 11.10~12
장소: 성이시돌피정의집 / 주최: 한통사
대상: 개인, 가족, 소단체, 본당구반장
문의: (010)9670-9775 / (010)2231-2074

가을 문화 피정

2차: 10.23(금) 15:00~24(토) 13:00
3차: 10.30(금) 15:00~31(토) 13:00
4차: 11.6(금) 15:00~7(토)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문자문의: (010)6791-0071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치유순: 11.6~8 / 11.21~23
12.4~6 / 12.18~20
추자도 성지순례: 10.31~11.3
11.14~17 / 11.26~29 / 12.7~9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 단체 | 일반 | 기타 알림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15(화) 10:00
장소: 본관 로비층 세례자요한경당
문의: (010)9353-0345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9.17(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M.S.M. 체나콜로 9월 미사 (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회
일시: 9.19(토) 10:00, 삼덕성당
강사: 이종하 스테파노 신부
문의: (010)9366-9170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재속맨발가르멜회 지망기 모집

첫째 주일 (010)5585-1128
첫째주 월요일 (010)8584-2004
넷째 주일 (010)2867-2719
넷째주 월요일 (010)6508-3404
대상: 만 19~55세 / 모집: ~27년 3월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발성법, 합창교실, 캘리언 그림,
제대꽃꽂이, 피아노, 성인 모래놀이치료,
가톨릭 미술의 이해, 가야금 성가연주,
성가반주 오르간, 가곡과 성가, 유희,
사범자격과정 꽃꽂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국가건강검진

정성과 세밀함으로 대학병원의
전문의료진과 함께하는 건강검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금 준비하
십시오.(암검진은 예약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배론성지 내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

피정 및 대관 신청 안내

내용: 본당 혹은 단체, 필요에 따라
피정 신청 가능(위탁 피정, 자체 피정)
인원: 최대 160명(숙식 제공)
문의: (043)651-4563, <https://baeron.or.kr>

가르멜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청년 모임

일시: 9.20(일) 10:00~17:00
장소: 상주 가르멜수녀원 / 1만원
취지: 젊은이들에게 기도 안에서 삶과
가르멜 수도자들과 만남 제공
문의: 최호정 모세 신부, (010)9528-2625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묵상회 안내

523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10.2(금) 18:00~4(일) 17:00 / 20만원
장소: 양산 영성의집, (055)382-9465
※ 최소 인원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WYD를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수도자)

일시: 10.12(월) 19:00~21:00
주제: WYD이해와 수도자의 참여와 기여방법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이세라 연구원
주최: 햇살사목센터
신청: www.hatsal.or.kr / (02)744-0840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10)4566-6476

교구 | 대리구 알림

군위요원 매장묘지 관리비 및 성묘 안내
관리비는 매장일로부터 10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2016.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미납된 관리비를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이 묘주가 아닐 경우, 미납 처리될 수 있음) 묘주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고,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나월선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9월 예비신학교 전체 모임

일시: 9.20(일) 14:00
장소: 1-3대리구_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포항) 4대리구청, (경주)성동성당
5대리구_ 5대리구청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6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기간: 10.1~29(매주 목) 10:00
장소: 교구청 본관 3층 중강의실
대상: 모든 어머니
비용: 15만원 / 마감: 9.21(월)까지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시설 | 기관 알림

순교자 성월 특집 음악회

꼬메스합창단 창단 발표회_동행
일시: 9.19(토) 18: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문의: 관덕정, 254-0151

새빛 시니어 신입생 모집

과목: 국어, 문학, 영어
수업: 주2회(수금반, 화목반)
문의: 가톨릭문화관(새빛학교), 476-3100

대구가톨릭대 일반대학원 종교영성학과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0.26(월)~11.6(금) 예정 / 월요일 강의
대상: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혜택: 성직자 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850-3998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안내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 기억되다.
: 박해가 맺어준 프랑스 신부와 조선 신자의 우정
기간: ~11.27(금)까지(월~토요일 개관)
장소: 대구가톨릭대 박물관(효성캠퍼스)
문의: 850-3282~4, <http://museum.cu.ac.kr/>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9월 14일(월) ~ 9월 19일(토) 6:50, 16:50, 23:50 조홍범(가브리엘) 신부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레이저 백내장 수술
대표원장 박종원(소시모)
의학박사(현세대 외래교수)
문의전화 626-8881~5

조 제 전 문
세계로약국
상담전화 053 652 1122
이운수(라파엘) / 이소담(마리아)
대구가톨릭대병원 정문 앞

서울아산내과
대표원장/전문의 박 현 진(사도요한)
** 일요일·365일 진료 **
CT검진 |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 초음파 | 만성질환관리
신매역 ⑤번출구 하나은행 2층 ☎ 792-8275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가람소방방재(주)
(주)가람이엔지
전문소방시설 점검 및 공사
기계설비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053)288-3260 / 010-4245-0507

불면증 건강 필수템
기적의 맨발걷기 상자
대한민국 우수 특허대상 신소재
친환경 제올라스트볼
“제올라스트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김희정 아네스
네이버, 쿠팡 1551-2088

백두병원
SINCE 1975
대구, 경북 최초 스트라이커사
마코 무릎인공관절수술 로봇수술
어깨 보존치료수술 관절경수술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 053-425-5919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베드로)

김앤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파킨슨병 / 치매
뇌혈관질환 / 손발저림·떨림 / 동증
원장 김성제(베네딕도) 신경과전문의 | 의학박사
감삼역 3번 출구 053)625-8899
40m(시민약국 건물) 5층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 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일구 대성빌딩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박병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병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학회 회장 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판테온파크골프
혼마, 국산채 최대50% 대여/무로레스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대구 유통단지 45 전차권 1층240호
일월운수 한일전기매트 소형가전
소금염착작기 게르마늄매트

도안김연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혈액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람(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상반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르노코리아 신차/시승/상담
“대형CUV 필랑트” 즉시출고가능!
그랑클레우스(하이브리드SUV)
아르카나(소형쿠팡형SUV)
※ 상담 및 시승 요청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박병목(헤르메스) 010.4795.2026